



남원시 관광루원 미술 산책 전시회 운영

남원시 관광시설사업소는 다중철을 맞아 10일부터 16일까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전통적인 산책과 미술의 만남을 주제로 관광루원 미술산책 전시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전시회는 관광루원 경내 나뭇길 산책로와 월매집 2곳에 남원지역 작가를 포함한 50인의 회화·조각 등의 예술작품들이 50여점이 곳곳에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연출되어 전시될 예정이며, 특히 이번 관광루원 미술산책 전시회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회화·조각 등의 예술작품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큐레이터가 상주할 예정으로, 큐레이터가 예술작품들을 설명해 주는 프로그램을 진행, 일반관람객의 시선에서 예술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중화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대한민국 1등 정원을 지향하는 관광루원에서 가을의 정취를 바라보면서 예술의 감수성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전시회를 준비했다며, 가족들과 행복한 가을 나들이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협 남원시지부, 사랑의 쌀 나눔 행사 펼쳐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권오정)는 지난 8일 남원시 관내 사회복지단체 6곳을 방문해 쌀 1,600kg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쌀 나눔은 쌀 소비 촉진을 통한 농촌소득 진작에 기여하고 쌀 나눔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하고자 추진되었다. 한편 권오정 지부장은 "앞으로도 우리 쌀 소비촉진과 더불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대병원, 대형사고 재난대비 도상훈련 마련

대형사고 등 재난으로부터 직원 및 내원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유희철 전북대학교병원장은 재난대비 도상훈련을 9일 실시했다.

국가핵심기반 대량피해 복구훈련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훈련은 병원 내 11개 부서가 참석했으며, 재난 유형별 피해발생 피해상황에 대한 조치방법과 인명관리 매뉴얼 등을 검증했다.

대설에 의한 건물붕괴 및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한 이날 도상훈련에서는 대설로 인한 건물붕괴에 이어 화재발생으로 대량 환자 발생과 정전과 단선 등 연쇄적인 재난 상황이 설정된 시나리오를 통해 재난 유형별 피해발생과 조치 방법을 강구하고 행동요령을 숙지해 실질적 대응능력을 향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도상훈련에 참가한 11개 부서별로 대형재난과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재난인원관리 매뉴얼을 검증하고 개선사항 등 논의했다.

전북대병원은 재난거점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재난상황에 대비해 재난응급의료지원팀 운영 및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신속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아동보호기관-보호관찰소, 아동학대 간담회

전라북도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조현경),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조자영),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아동학대 사례 대응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지난 8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라북도 지역 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기관 협력 방안과 대책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라북도·전주시·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과 보호관찰소가 참석한 이번 자리에서는 관 내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참석 기관이 함께 대응하여 심도있는 교육 및 상담 제공, 협업을 통해 재학대를 예방하기로 약속했다.

조현경 전라북도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전주보호관찰소와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기쁘다"며 "아동학대 가정의 회복과 재학대 예방을 위해 전주보호관찰소와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황남례 전주보호관찰소장은 "범죄 예방을 주 기능으로 하는 보호관찰의 강화를 통해 관내 아동학대 범죄 근절에 힘 쓰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장애친화 산부인과' 선정 받아

예수병원 전국 의료기관 최초 개소식 가져

전주 예수병원(신종식 병원장)은 작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친화 산부인과' 8개소 선정을 받아 전국 의료기관 최초 개소식을 가졌다.

예수병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운영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예수병원은 '장애친화 산모의 편의성을 고려, 진료환경 개선 새로운 장비 도입'으로 높은 수준의 진료와 검사를 할 수 있게 산부인과를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전라북도 유일한 장애 친화 산부인과를 개소한 예수병원은 '고위험 분만, 진료 접근성' 문제 등 여성 장애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먼저 다가가 여성 장애인의 안전한 임신과 출산 등 여성 질환 관리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인(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해 장애인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했으며, 전문 의료 코디네이터의 도움으로 '외래 분만 입원' 등 진료 전 과정에서 예약 및 동행 서비스를 지원해 여성 장애인이 24시간 공백 없는 통합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구축했다.

장애 친화 산부인과는 휠체어 이동 및 회전공간이



확보된 진료·분만·수술실 등의 시설을 기반으로 △휠체어 체중계 △이동식 전동리프트 △흉부 X-ray(침대 타입) △진동침대 등 여성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장비를 갖췄다.

신종식 예수병원장은 "지자체 사업에서 복지부 주도 사업으로 변경된 전국 최초 장애 친화 산부인과가 개소하며 도내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누구나 동일하게 동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예수병원은 의료 사각지대를 먼저 들여다보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의료정책에 앞장서겠다"고

/김영태 기자



완산소방서, '제60회 소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제60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장수)는 직원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유공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제60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소방의 날'은 국민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봉사하는 소방대원들을 격려해 숙직 소방인의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날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우범기 전주시장, 김이재, 이병철, 진형석, 박정규 전북도의원, 전주완산소방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유공자 48명' 등 총 90여 명이 참석했으며, 1부 본행사와 2부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1부 본행사에서는 현장활동 홍보영상시청을 시작으로 소방행정 발전과 공로에 이바지한 소방공무원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국무총리표창 1명,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1명, 소방청장 표창 5명, 도지사 표창 8명 등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축사 및 서장님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제60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그동안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희생해온 대원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치과의사회, 복지재단 '전주사랑'에 300만원 기부

전주지역 치과의사들이 소외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성금을 기부하며 복지사업에 한층 열을 올렸다. 전주시치과의사회(회장 이화준)는 전주복지재단 전주사랑(이사장 이병관)에 주변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성금 300만원을 9일 기부했다.

이날 기부된 성금은 전주시치과의사회 회원들이 지난 1년간 모금한 것으로, 아쉽게도 굶는 아이들을 위한 엄마의 밥상과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희망도시를 지원하는 '지혜의반찬'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주시치과의사회는 앞서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구강검진사업 등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진행해왔으며 △미안마 민주화지회 △엄마의 밥상 등에 총 300만원의 성금을 후원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꾸준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왔다. 이병관 전주복지재단 '전주사랑' 이사장은 "전주시치과의사회의 따뜻한 나눔은 도움이 필요한 시각장애 아동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주시치과의사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전주복지재단 '전주사랑'은 △전주형SCS 긴급지원사업 △사랑나눔간병지원사업 △우리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대 전공 연계형 봉사... 감사 담은 음식 전달

전주대학교 전공 연계형 봉사활동 학생들이 미화원과 경비원에게 음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9일 한식조리학과와 전공 연계형 동아리 '청춘속수 8박'은 정성을 다한 음식(밀반찬)을 준비, 이들에게 전했다. 청춘속수 8박(지도교수 차진아)은 한식조리학과 3학년을 주축으로 교과과정에서 배운 향토음식실습과 전통발효실습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동아리다.

한편 이번 나눔 활동은 전주대 사회봉사센터(센터장 손지훈)에서 주관하는 전공 연계형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정은성 기자

최분아 작가, 전북경찰청 갤러리에 작품 전시... 감사장 받아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는 전북형 무궁화아트홀에서 지역사회 문화예술 서비스 향상을 위해 '결혼의 향기'로 작품전시한 최분아 작가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번 초대작가인 최분아 작가는 '원광대학교 미술교육과, 대학원 미술학과(서양화) 졸업, 개인전 27회, 아트페어 9회' 그의 기획초대전 및 그룹전 450여회 출품하는 등 다수 경력을 지닌 작가다.

최 작가는 제25회 전주시 예술상(미술부분)을 수상했으며 현재 '여류구상작가회, 전북여성미술인협회, 전업미술가협회, 환경미술협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결혼의 마음으로 그려낸 작가의 "꽃" 이미지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함과 따스한 향기를 전하고, 아름다운 삶을 바라는 마음으로 결혼의 향기를 표현하고자 했다.

또 우연히 지나면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꽃들의 향기, 꽃



가게에 가지런히 진열된 다양한 꽃들, 스쳐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에서도 꽃은 작가의 풍요로운 감성언어로 다시 피어 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정읍농협, 가을철 유관기관과 농촌일손 돕기

농협 정읍시지부(지부장 이재연)는 9일 범농협 직원들과 유관기관의 직원들이 함께 가을철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일손돕기에는 범농협 직원(전북지역본부, 시지부, 정읍원협)과 유관기관(범무부정읍읍관복지지원센터, 정읍시지원봉사센터) 직원 등 23명이 참여했으며, 수확철 일손부족으로 걱정하는 농가에 도움을 줬다.

농협정읍시지부는 올해부터 유관기관들과의 합동 일손돕기를 적극 확대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수시로 찾아가 도움을 주고 있다. 농협과 함께 어려운 일손돕기를 함께한 유관기관의 직원들도 정읍 농촌과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뜻깊은 일에 함께 하고 있어서 기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정읍=김태환 기자



부안 진서면, 슬지제빵소 쌀 100포 기부

부안군 진서면 슬지제빵소에서는 면사무소를 방문해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해 쌀 100포(10kg)를 기부했다.

슬지제빵소는 매일 복지하브와 정기기부(착한기부)를 하고 있으며, 지난 추석에도 제빵소 주변 주민들에게 백미를 전달하는 등 평소에도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이웃사랑으로 진서면에 거주하는 독지가가 최근 쌀 가격 하락과 벼 수확량 감소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불구하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100포를 직접 경작한 햅쌀 50포(10kg)를 기탁했다.

조진군 진서면장은 "기부 받은 쌀을 관내 저소득층,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관내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잘 전달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박병철 우리농업지킴이 전북본부장, 김치나눔

도내 복지시설 및 취약 농가들을 위해 박병철 (사)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 전북지역본부장(NH전북농협 노조위원장)은 김장김치 25세트(2,250kg)를 9일 전달했다.

박병철 본부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북도민과 농업인을 위한 나눔활동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는 범농협 임직원들이 매일 1,000원 이상의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공헌단체로서 '동화책 발간사업,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우리 농축산물 홍보, 소비촉진활동'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위원회 개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지난 8일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재산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청에서 전국 산사태발생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한 개략적인 조사를 거친 후 지방산림청과 시·군·구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조사지표를 바탕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고시하게 된다.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사태 예방사업을 비롯하여 주민들의 비상연락망 구축과 대피장소 지정, 위기경보 긴급재난 문자 발송 등 주민대피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 및 산사태 현장예방단인 2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 위험요소 발견 즉시 응급조치 등을 실시하게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